

한라시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주 생명의 원류, 천미천을 위하여

천미천은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이다. 한라산 동쪽 돌오름 기슭에서 발원해 흐르다가 조천읍 중산간지역의 부대악과 부소오름 앞에서 급격히 방향을 틀어 남쪽으로 향한다. 이후 송당리를 지나 성읍리, 신평리를 거쳐 하천리 바닷가에서 긴 여정을 마무리한다. 천미천은 조선시대 지리학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서도 매우 길고 복잡한 하천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후 현장조사와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서도 천미천은 무불구불한 곡선의 사행천으로 수많은 지류들을 품고 있는 하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산간지역 하천의 종류부터는

평지 위에 길게 흐르고 있어서 하천 곳곳에 물이 고일 수 있는 크고 작은 소(沼)들이 다른 하천들과 비교될 만큼 매우 많이 분포한다. 하천 양안은 제주의 여느 하천과 마찬가지로 울창한 활엽수림이 형성돼 마치 띠 모양의 긴 숲 지대가 이어진 형상이다. 이러한 천미천의 생태환경은 다양한 동식물들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천미천이 대중적으로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한라일보의 기획물 '한라산 학술대탐사'에서였다. 취재팀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도내 주요하천을 탐사해 보도하는 방식이었는데, 시민들은 기사를 통해 천미천의 아름다운 경관, 다양한 생태계, 하천 지질의 특성을 접하며 제주 하천의 진면목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 천미천이 자주 범람하는 이유도 천미천을 포함한 한라산 동부지역 일대의 지형 지질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천미천은 한라산 동부 중산간지역을 관

통하는 유일한 하천인 만큼 비가 오면 이 일대 모든 물들이 천미천으로 모여 든다. 그러다보니 하류지역은 해마다 홍수가 발생해 침수피해를 겪는 일이 잦았다. 당국에서는 하류지역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오래전부터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하류 지역 천미천 하상이 크게 훼손돼 하천 바닥의 원형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이후 10km 가까이 하천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농업용수 공급 및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성읍댐이 조성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인위적인 행위로 천미천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다. 천미천은 과거 하류 지역의 재정비 계획은 물론 최근에는 중류 지역까지 하천정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행정당국이 내놓은 정비사업 근거와 타당성에 의문이 드는 점이 많았다. 하천 중류 지역 사업구간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보니 주택이나 농지

가 아닌 수림지대 또는 목장용지들이어서 홍수예방을 위한 공사구간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류지역도 마찬가지였다. 토지보상 대상 농가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정비사업 이후 하천범람 피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하천정비를 위해 당국이 토지수용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하천정비사업뿐만이 아니었다. 정비구간 바로 인접해서는 천미천의 비경을 배경으로 타운하우스 건설이 한창이었다. 재해위험지구에도 대규모 개발을 허가해 준 셈이다. 간천이라는 특성 때문에 제주의 하천은 자연계에서 주목받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의 하천은 제주 생태계를 대표하는 환경 중에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천미천은 절과 행정당국이 내놓은 정비사업 근거와 타당성에 의문이 드는 점이 많았다. 하천 중류 지역 사업구간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보니 주택이나 농지

사설

최남단 마라도까지 악취에 시달린다니

국토 최남단 마라도가 악취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실로 충격적이다. 청정제주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어서다. 마라도의 악취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수년째 이어져온 고질적인 민원이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맨 남쪽의 상징적인 섬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마라도가 악취에 시달리고 있어 안타깝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여름철 관광객 성수기를 앞둔 마라도의 악취는 점점 더 심해지면서 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민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4-5일 이틀간 현장 확인 결과 마라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극심한 악취가 났다. 또 지역에 있는 쓰레기처리장에서도 악취가 풍기면서 코를 막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여럿 목격될 정도다. 이 섬을 찾는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지적하는 문제도 바로 악취다. 대구에서 온 60대 여성 관광객은 악취로 즐겁고 행

복했던 모든 것을 앓아갔다고 토로한다. 조용한 섬에서 보내는 게 너무 좋아 자주 찾는다는 제주도민 부부 역시 가장 아쉬운 점으로 밤낮 풍기는 역한 냄새를 꼽는다. 하루 이를 머물다 떠나는 관광객이 이어져온 고질적인 민원이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맨 남쪽의 상징적인 섬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마라도가 악취에 시달리고 있어 안타깝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여름철 관광객 성수기를 앞둔 마라도의 악취는 점점 더 심해지면서 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민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4-5일 이틀간 현장 확인 결과 마라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극심한 악취가 났다. 또 지역에 있는 쓰레기처리장에서도 악취가 풍기면서 코를 막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여럿 목격될 정도다. 이 섬을 찾는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지적하는 문제도 바로 악취다. 대구에서 온 60대 여성 관광객은 악취로 즐겁고 행

편집국 25시



강다혜 정치부 기자 dhkang@ihalla.com

30분 전

중대 부작용 사례를 보면 천하에 몸 쓸 약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한다. 한 발 더해 돌과감염 사례까지 보자면 까막하민 부작용에 당혹되는 러시아 돌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면서도 그 소기의 목적을 고려해보면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변함없이 없어진다. 백신은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동적으로 집단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다. 개인 건강 증진 또는 치료제가 아닌 탓이다. 나 혼자 산다면 백신 접종따위 안 하고 사는 게 답이겠지만, 산기술에 묻혀 유유자적 독야청청하는 수도자가 아니기에,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자부해도 이 사회엔 나보다 건강한 이들보다 건강하지 않은 이들이 수두룩하고, 나는 감사하게도 내가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 그들로부터 훨씬 많은 것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백신은 개인에게 사회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약자를 보호하는 영향도 갖는다. 접종 여부를 고민할 때 사회에서 내가 받은 것을 고려하기 앞서 잠재적 부작용 등 내가 볼 수 있는 손해에만 집중한다면 편협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30분 후 내 몸 속으로 다소 생소한 물질이 들어오는 장면을 자주 그리게 된다.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사뭇 궁금하다. 촉감은 따듯할지, 묵직할지, 뻣근할지, 온도는 뜨끈할지 차가울지. 일상을 영위해야 한다면 백신 접종은 이 시대의 조건이 된 듯하다. 다만 그리 오랜 역사가 있는 예방주사가 아니어서 조금은 불안하다고들 한다. 접종 기준은 조금 더하다. 인간이 30년을 기준으로 환골탈태하는 것도 아닐텐데, 생체 나이로 갈라지는 접종 기준 또한 불안감에 박차를 가한다. 고대하던 백신이 나왔지만 그 앞에서 또다시 양가감정에 놓여 있다. 수량을 제때 확보하고 배분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면서도, 접종 후 나타난

뉴스-in

'제주 안심코드' 제도개선 최우수 사례

방역 효율화 아이디어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 안심코드를 민원 제도개선 최우수 사례로 9월 일 선정해 해당 업무를 추진한 부서에 시상금과 상패를 수여. 지난해 12월 도입된 제주안심코드는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출입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평가. 최승연 도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민원 제도 개선 사례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한다. 이상민기자

업무소홀로 과실 없어야

○...안동우 제주시장이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 안 시장은 9일 주간 간부회의

에서 "행정의 업무소홀로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과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

이어 "각 부서에서 관련 시설 점검 등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적극 검토하고, 안전사고 등에 완벽 대비해달라"고 당부. 이윤형기자

코로나 블루 극복 '책처방'

○...서귀포시서부도서관이 코로나 블루 극복에 따른 비대면 프로그램인 '나를 위한 북(book)타임'을 운영하며 책처방 영상을 제작해 화제.

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부도서관은 시 공공도서관 SNS(서귀포포리브)와 유튜브채널을 통해 책처방 영상을 제공.

시 관계자는 "책처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사연으로 받아 독서상담사의 개인맞춤형 책처방을 제공해 시민들의 고민 해소 및 마음 치유를 위해 기획됐다"고 전했다. 백규탁기자

공영주차장 비양심 장기주차 두고만 볼 건가

도심지 주차난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그간 펼쳐 온 자기차고지짓기 사업, 차고지 증명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복층화사업 등을 무색케 할 정도로 도심지-주택가 주차난이 현재진행형이다. 여러 원인중 차량 운전자가 시내 운전중 주차장소를 찾지 못해 헤매거나, 지역주민이 거주지 인근 공영주차장에 구간은 커녕 야간 주차도 못하는 사례들이 '상존'하는 현실에선 시민들 피부로 느끼는 주차난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공영주차장은 여러 사람 공동 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인데, 특정한 '장기 점유'로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 지속은 매우 우려스럽다. 일부 비양심 운전자들이 장기 주차해버려 인근 주민은 물론 해당 지역에 용무차 온 시민들의 주차까지 아예 막아버리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시 용담2동 옛 서문파출소 동측 무료 공영주차장이다. 52년

구로 이 주차장은 무료에다 공영인근에 위치해 일부 몰지각한 공영 이용객들이 장기 주차하고 있다. 종일 아닌 연중 빈 공간을 찾기 힘들 정도다. 합덕 캠핑장 인근 공영주차장 사례서 보듯 주차공간에 텐트와 차광막까지 설치해 불법 캠핑 장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공영주차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판국이니 이제나 저제나 주차난 해소를 기대하는 자체가 '연감생심'인 현실이다. 행정이 매년 주차장 신설 사업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말고 기존 주차장 관리라도 더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현재 도 전역에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비양심 장기주차 실태 파악과 일부 비양심 운전자들이 장기 주차해버려 인근 주민은 물론 해당 지역에 용무차 온 시민들의 주차까지 아예 막아버리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시 용담2동 옛 서문파출소 동측 무료 공영주차장이다. 52년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광산김씨 정혜(향년 85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1년 6월 10일 아들 고영호 며느리 정경자 고서영 딸 고정림

백도라지 분말 관상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토지 급매 가격 1) 서귀포 법성 최고 전망(특A++) 건축허가 완료, 10필지 중 토지 150-220평 단, 8개 남을 ★평당 220만원★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예정지구 부근, 12m계획도로 진행중, 총 480평 ★평당130만원★ 3) 호근동 별장부지 법성 조망 최고, 서호초 2분, 하나로마트 3분거리 총 681평 ★150만원★ 4) 강정동 해안도로 바다조망 한라산조망 최고, 호텔 및 고급 빌라 부지용, 총 2486평 ★190만원★ 5) 월평동 해안도로 초근접 바다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카페부지 특 A+++ 총 1635평 ★85만원★ 6) 강정동 해안도로 앞 15m 건축가능, 바다조망 카페용 펜션용, 총 376평 ★240만원★ 7) 월평동 바다조망 한라산조망 건축허가 150평, 180평, 380평, ★160만원★ 010-5432-3543, 010-4627-3543

방수 단열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